

## 17~19세기 우리 나라에서 한자시창작의 특징

김 희 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사상은 사회정치적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서 가장 예리하게 드러나며 문학작품의 사상적경향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정치적목적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31페이지)

17세기이후는 우리 나라 봉건사회말기로서 봉건적통치질서가 점차 와해되어가던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중세말기에 속하는 17~19세기 한자시작품들은 당대의 복잡한 사회력사적환경에서 각이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창작되였다.

17~19세기 우리 나라에서 한자시창작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광범한 계층에 의하여 창작된것이다.

17~19세기 한자시창작에는 봉건지배계급출신의 문인들은 물론 평민출신들과 녀인들, 지어는 일부 천민들도 참가하였다.

이 시기 특히 평민들속에서 한자시창작이 매우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평민출신문인들의 작품집에만도 무려 870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들은 《락사》, 《송석원시사》, 《칠송정시사》 등 처지가 같은 사람들로 시창작모임을 못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였으며 종합작품집을 편찬하는것과 함께 개인문집들도 편찬간행하였다.

홍세태의 《류하집》, 석희박과 그의 아들 석만재의 《남천두촌고》, 차좌일의 《사명자시집》, 김세중의 《서천처사유고》, 리경창의 《서촌집》 그리고 조수삼의 《추재집》 등은 그 대표적인것들이다.

정봉은 뽕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평민출신의 시인으로서 창작적기량이 높아 널리 알려진 시작품이 적지 않았다.

그의 시 《뽕나무를 팔며》는 7언절구로 되어있는 작품으로서 어깨에 뽕나무를 메고 이른새벽 한성으로 가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방불하게 안겨온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까지도 한자시창작에서 명성을 떨치였다.

물론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도 어무적이나 백대봉과 같이 노비출신의 한자시창작가들이 간혹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봉과 같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창작적기교에 대하여서도 크게 소개된것이 없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는 평민출신의 한자시창작가들이 많이 나왔고 그들의 창작성과들이 널리 알려졌다.

17~19세기에는 녀류문인들의 활동도 지난 시기에 비할수없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17세기초에 활동한 정유길의 딸이며 류자신의 안해인 정씨, 리귀의 딸인 레순, 김육의 딸이고 서문리의 안해인 리씨, 리필운의 안해 남씨, 김제남의 며느리 정씨 등 량반귀족가문의 녀인들과 함께 평민, 기생출신의 팍씨와 소흥 등 각이한 계층의 녀성들이 한자

시창작에 참가하였다.

그중에는 홍석주의 누이동생 홍원주, 강재수의 딸인 정일당, 김치양의 첩인 운초와 같이 문집을 남긴 사람들도 있다.

17~19세기 한자시창작에서 특이한것은 김병연의 활동이다.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연은 우리 나라 봉건사회말기에 활동한 재능있는 시인이었다. 김삿갓의 한자시작품들은 주로 당대 위정자들의 추악한 면모를 풍자조소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의 풍자대상은 허장성세와 위선으로 가득찬 통치배들, 주로 지방의 량반들이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원생원》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었다.

해 뜨자 원승이가 들에 나오고  
 날 저무니 모기들 처마에 나네  
 고양이 지나가자 쥐는 모조리 죽고  
 밤 들어 벼룩은 잠자리 나와 쏘네

(《원생원》《김립시선》)

이러한 풍자는 실지 체험을 통하여 량반통치배들의 생활에서 본질적인 부패성을 포착한데 기초한것으로서 매우 생동하고 예리하다.

우리 나라 중세력사에서 방랑생활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진행한 봉건문인으로는 흔히 15세기 김시습과 19세기 김병연을 들수 있다.

서로 다른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생활하면서 창작활동을 벌리였던것으로 하여 그들이 창작한 한자시들은 봉건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는데서도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김시습은 대체로 봉건사회가 발전하던 때에 상층인물들의 생활을 비판하였다면 김병연은 몰락해가던 봉건사회말기에 부패한 량반통치배들을 야유조소하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봉건사회말기인 17~19세기 한자시창작에는 각이한 계층이 참가하였다.

17~19세기 우리 나라에서 한자시창작의 특징은 다음으로 봉건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이 전에없이 강화된것이다.

17세기이후 진보적인 문인들은 한자시창작에서 봉건사회의 불합리한 현실과 봉건통치배들의 부패상, 착취상을 폭로비판하였으며 인민대중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하였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한자시창작에서의 현실비판적경향은 특히 실학과문인들과 평민출신문인들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례로 정약용의 시 《적성촌의 오막살이》를 들수 있다.

시내가 찌그러진 집 한채 게딱지 같구나  
 새바람에 이영 겹혀 서까래만 앙상하네  
 식은 재에 눈이 덮혀 부엌은 차디차고  
 허물어진 벽틈으로 별이 송송 비쳐드네  
 쓸쓸한 방안에는 그 무엇이 남았으랴  
 모조리 다 팔아도 한량어치 못된다네  
 개꼬리 조이삭 서너이삭

빨간 고추꺾미 단 한꺾미  
 깨여진 항아리는 형겅으로 발랐으며  
 찌그러진 시렁대는 새끼줄로 엮매였다  
 돛수저는 지난날에 리정눔이 채가더니  
 쇠남비 남았던건 옆집량반 앓아가고  
 ...

(정약용 《적성촌의 오막살이》 《대동시선》 권7)

시인은 작품에서 19세기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다 허물어진 집은 북풍에 이영이 날아나고 서까래만 남았는데 불을 지피지 못한 부엌은 날아든 눈으로 하여 싸늘하기 그지없다. 집에 있는것이란 산밭에서 거두어온 서너이삭의 조이삭과 한꺾미 고추뿐, 깨진 항아리, 찌그러진 시렁, 쇠가마도 없고 숟가락도 없는 세간살이 등은 중세말기 우리 나라의 농촌현실이였다.

이처럼 당시 실학과문인들은 봉건사회말기 통치배들의 학정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눈물겨운 생활을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실학과문인들은 당시의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이 봉건통치배들의 악랄한 착취행위때문이라고 까밝히였다.

이처럼 실학과문인들은 한자시창작에서 봉건통치배들의 착취행위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이 시기 평민출신의 문인들도 당시 현실의 여러가지 부정적측면들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평민출신의 문인들이 비판의 초점을 모은것은 특히 봉건적신분제도였다.

봉건통치배들이 실시하던 신분제도는 봉건적통치제도, 통치질서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제도였다. 평민계층은 그러한 신분제도의 직접적인 희생물이였다.

평민출신의 문인들은 당시 인민대중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동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양반통치배들의 생활과의 강한 대비속에서 보여주었다.

여름에 가물들어 난알이 옥같고  
 겨울비 잦아서 화목도 계수같으니  
 부자들도 견디기가 어렵다는 판국에  
 가난한 우리네 이 고생을 어찌나  
 관청창고들은 모조리 텅텅 비여  
 묵은것 거덜나고 햇곡은 아득한데  
 나라의 쓰임새도 지탱하기 어렵거든  
 백성을 구제함에 미칠 손이 있으랴

(림광택 《검탄》 《풍요삼선》 권1)

평민출신의 문인인 림광택은 작품에서 누구보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여 부자들과의 대비속에서 노래하고있다.

봉건사회말기의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인민들을 동정하면서도 그것을 당대의 심각한 계급적대립과 빈부의 차이속에서 보여준것은 평민계층문인들의 한자시가 일반 량반계층 진보적인 문인들의 작품과 일정하게 차이나는 측면이다.

평민출신의 문인들은 특히 봉건사회말기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던 최하층인민들의 생활에 눈길을 돌리고 그들의 고달픈 형편을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평민계층문인들이 창작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가난한 처지에서 지내던 사람들로써 주로는 가난한 농부, 어부, 짐꾼, 거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 등이었다.

평민계층의 문인들은 당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사는 백성들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사회현실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폭로비판하였다.

시장에서 무리를 지어 기다리다가 무거운 짐을 옮겨주고 값을 받아 살아가는 짐꾼들의 처지를 반영한 리양유의 시 《짐꾼의 탄식》에서는 작품에 짐꾼을 등장시키고 그를 통하여 당대의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비판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비록 어렵기는 해도 제힘으로 살아가는 짐꾼들의 생활이 《높은 벼슬아치들 앉은채 남의것을 글쟁이질하기보단 자량이 아니냐》고 반문하고있다. 시장에서의 짐꾼들의 생활처지를 노래한 작품은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던 당대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이다.

이것을 김락서의 5언고체시 《영풍동광》과 련결시켜보면 그 사상주제적내용이 명백하게 안겨온다.

구덩이속에서는 광술불 켜들고  
 낭떠러지에는 바줄을 타고내려  
 광맥을 찾느라 떠들기도 하고  
 허겁지겁 사방을 살피기도 하네...

구덩이가 무너져 사람이 죽는대도  
 로회한 광주는 제 욕심만 채우니  
 이런 광주들이 죽어버리기 전엔  
 같은 불행이 다른 산에도 미치리라...

(김락서 《영풍동광》《풍요삼선》권 2)

작품에는 광주와 고역을 강요당하는 고용노동자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봉건사회말기에 새롭게 발생한 광산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를 보여준것이다.

평민계층의 문인들이 한자시작품들에서 당시에 발생발전하던 자본주의적관계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준것은 중세말기에 우리 문학의 소재령역을 새롭게 하여준것으로 하여의의가 있다.

5언고체시 《영풍동광》에서 시인은 《백성들은 본래부터 농사를 지으며 알뜰하고 검박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리도 황금에 눈이 뒤집혀서 죽음을 무릅쓰고 덤비게 하느냐》고 절규하고있다.

17~19세기 우리 나라에서 한자시창작의 특징은 다음으로 형식이 매우 다양한것이다.

우리 나라 중세말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리용된 한자시형식은 근체시로서 절구와 룰

시였다.

실례로 홍세태가 편찬한 운문작품집 《해동유주》에는 당시에 활동한 평민계층의 문인 48명의 작품 164편이 수록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절구가 45편이고 툄시가 104편이다.

이것은 당시 문인들이 운문창작에서 많이 리용한것은 근체시중에도 툄시가 가장 보편적으로 리용된 형식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1857년에 편찬된 풍요집 《풍요삼선》에는 307명의 문인들이 지은 각종 운문 713편이 수록되어있는데 그가운데는 절구가 180편이고 툄시가 286편이였다.

이처럼 중세말기 운문창작에서 가장 널리 리용된 형식이 근체시였으며 그가운데서도 툄시가 가장 많이 쓰인 형식이였다.

근체시들중에서는 7언시를 많이 리용하였다.

《풍요삼선》을 보면 7언툄시가 144편이고 7언절구가 151편으로서 전체 작품가운데서 7언시가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7언고체시 45편까지를 합치면 우리 나라 중세말기에 보편적으로 리용된 운문형식은 7언시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17~19세기 한자시창작에서는 고체시도 비교적 많이 창작되였다.

고체시는 주로 서사적인 내용을 담는데 리용되였던것만큼 몰락해가는 봉건사회의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노래하는데서 이 형식을 리용하였던것이다.

보다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려고 노력한 문인들은 대체로 고체시형식을 리용하였다.

당대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정약용의 작품들은 4언고체시이거나 장단구형식의 고체시였다.

고체시형식으로 서사적인 내용을 노래한것은 김려의 창작활동에서 찾아볼수 있다.

《장원경의 안해 심씨를 위해 지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작한 5언고체시, 일명 《방주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은 중세말기 사람들에게 대한 신분적차별을 반대하고 사람들의 인품과 재능,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결혼할것을 주장한 진보적인 사상을 반영한 서사시로서 매우 긴 형식의 시이다.

이 시기에는 근체시와 고체시이외에도 명, 잠, 찬, 송 등 여러가지 형식의 운문들을 다 창작하였는데 특히 이채로운것은 악부시였다.

17~19세기에 사회의 각이한 계층이 한자시를 창작하고 생활의 다양한 분야를 반영한 수많은 작품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이름을 떨친 문인들도 많이 나타났다.

20세기초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시기 자기의 문집을 남긴 문인이 모두 986명인데 그가운데서 대부분이 조선봉건왕조후반기 사람들이다.

17~19세기 한자시창작에서 서자출신문인들의 활동이 이전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현상으로서 그들은 창작적기량도 높았고 소재도 다양하였으며 당시 인민들의 지향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정래교, 정민교형제와 림준원, 홍세태, 고시언, 장훈, 조수삼, 정봉 등이였다.

이처럼 17~19세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광범한 계층에 의하여 봉건사회말기의 불합리한 사회현실과 우리 인민의 다양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각이한 형식의 한자시가 수많은 창작되어 중세문학유산을 풍부히 하였다.